

NOVEMBER 2021 VOL.637

hyangjang



Sulwhasoo

AMOREPACIFIC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PRODUCT 미리 만나는 홀리데이 컬렉션

SPECIAL 부위별 스페셜 케어 팁

MAKEUP PLAY 2021 베스트 립 컬러 4

- 02 NEWS
11월의 가장 핫한 뉴스
- 06 NEWS-TREND
촉촉하게 빛나는 글로우 스킨
- 08 MAKEUP
브라운 메이크업의 변신
- 14 PRODUCT
미리 만나는 홀리데이 컬렉션
- 18 SPECIAL
부위별 스페셜 케어 팁
- 26 MAKEUP PLAY
2021 베스트 립 컬러 4
- 30 PRODUCT
취향별 향수 추천 가이드
- 34 PRODUCT
헤라
- 36 PRODUCT
프리메라
- 38 PRODUCT
비아탈뷰티
- 40 PRODUCT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자음유액 퍼펙팅
- 44 HEALTH
중년 여성의 건강 솔루션
- 46 ICON
11월의 인테리어
- 50 PLACE
절학까지 갖춘 완벽한 플레이스
- 52 REVIEW
깐깐한 품평단의 꿈꿀 리뷰
- 54 ESSAY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
- 56 EDITOR'S PICK
11월의 강추템

발행일 2021년 11월 1일
발행 통권 637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인서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방판 컨텐츠&서비스팀
인쇄 (주)태신인팩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이미경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4년간 637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1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등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YANGJANG JOURNAL

All about Knits : 2021 F/W 시즌은 바야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스하고 포근하게 감싸줄 니트의 전성시대다.

editor LEE MI KYUNG

유난히 독창적이고 자유분방했던 2021 F/W 시즌 런웨이에서 포착한 패션 메가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이 계절에 빼놓을 수 없는 니트다. 팬데믹 사태로 '원마일 웨어'와 '오버사이즈' 등이 트렌드 키워드로 부상하며 편안한 옷으로 자유로워지길 원했던 지난 봄·여름 컬렉션의 바람이 이번 시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니트가 더욱 주목받게 된 것.

스웨터, 카디건, 아우터 등 다양한 니트웨어가 등장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스타일은 상하의를 모두 니트로 구성한 토탈 니트 룩.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맥시 드레스를 선보인 꿀로에와 장풀 고티에, 스웨터와 스커트 셋업으로 올 니트 룩의 진수를 보여준 보테가 베네타, 이 밖에 펜디와 프로엔자 스쿨러까지 니트에 니트를 더해 부드럽고 우아한 매력을 뽐냈다. 스타일링이나 보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용적인 니트 베스트는 가을철 눈여겨볼 핫 아이템. 지난해부터 인기를 누리기 시작해 올해 더욱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1 필립 림, 마쥬 등을 위시해 이번 시즌 압도적으로 많이 선보이는 니트 베스트는 짧은 크롭트 스타일, 스탠더드 스타일, 오버사이즈 스타일까지 디자인도 다채롭다. 이 덕분에 반소매 티셔츠부터 원피스 까지 내키는 대로 매치해 입을 수 있다. 올가을 유행하는 색인 브라운이나 블랙, 크림 화이트를 선택해 셔츠 블라우스에 덧입으면 트렌디한 느낌이 배가된다. 단, 니트는 그 자체로 충분히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어중간한 길이의 하의를 선택하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아무리 미니멀 라이프를 중시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거추장스러운 것을 지양한다고 해도 새 계절을 맞이한 옷차림에 걸맞은 메이크업은 필요하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니트 룩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면 피부를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표현하고 자연스러운 음영을 더하거나 입술에 포인트를 줄 것. 부드러운 베이지나 브라운 계열에 브릭 컬러나 빈티지 로즈 컬러를 활용해 멋잇해 보일 수 있는 얼굴과 스타일링에 입체감을 더하거나 매트한 질감의 레드 립으로 포인트를 주면 편안하고 에지 있는 스타일을 쉽게 완성할 수 있다. **ID**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ARKET, BANYAN TREE CLUB & SPA SEOUL, LEICA CAMERA, MANOLO BLAHNIK, MAXMARA, MOYNAT



지속 가능한 프리미엄 아우터 컬렉션

지속 가능성이 패션계에서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캐멀 컬러 코트의 대명사, 막스마라도 이에 동참한다. 자체 개발한 지속 가능 섬유인 캐멀 럭스를 충전재로 사용한 프리미엄 아우터 컬렉션 '더 큐브 with 캐멀 럭스'가 그것.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텍스타일 익스체인지와 국가적 비영리 기관인 ICED 인증을 받은 캐멀 럭스는 막스마라의 아이코닉한 코트를 제작하고 남은 원단을 친환경적 방식으로 재가공한 섬유로 견고하고 복원력과 보온성이 뛰어난 것이다. 총 10가지 스타일과 캐러멜, 루슬트, 차콜, 블랙, 다크 블루 컬러로 출시하는 이번 컬렉션은 국내 매장과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막스마라(kr.maxmara.com)



시선을 사로잡는 아르데코 백

가을 스타일링에 포인트가 될 백을 찾고 있다면 다채로운 색과 그래픽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이나의 '플로리 M 마케트리'를 눈여겨보길. 1849년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모이나의 핸드메이드 노하우를 담은 마켓리 기법을 적용한 백으로 숙련된 장인들이 손으로 직접 섬세하게 가죽을 자르고 이어붙인 것이 특징이다. 곡선 형태의 플로리 백 위에 각각 다른 사이즈와 컬러의 가죽을 배치해 표현한 M 로고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부드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직선형의 아르데코 패턴의 대비가 매력적이다.

문의 모이나(02-596-9620)

놓칠 수 없는 가을 주말 브런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그라님 다이닝 라운지'에서 주말 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어텀 브런치 스페셜을 마련했다. 가을을 콘셉트로 밤, 곶감, 무화과 등 제철 재료를 풍성하게 넣어 미각을 돋우는 메뉴를 뷔페로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 세프가 즉석에서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라이브 섹션을 비롯해 직접 테이블로 서빙되는 데일리 수프, 우대 갈비와 바닷가재 플레터, 참송이 성게알 막국수도 일품. 마무리로 밤 티라미수, 호두와 곶감 파운드케이크, 호두 피낭시에 등도 커피나 티와 함께 맛볼 수 있다. 11월 28일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 한정으로 운영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문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02-2250-8000)



디저트 애프터 쇼핑

쇼핑 후 고소하면서도 건강에 이로운 디저트 한 입이 간절하다면 계절마다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만든 메뉴를 선보이는 아르켓 카페로 향해보자. 아르켓 카페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메뉴, '피넛 버터와 초콜릿 바나나 브레드'는 가을의 맛과 정취를 즐기기에 제격. 바나나를 베이스로 오가닉 통밀 가루를 더해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피넛 버터와 초콜릿이 어우러진 달콤하고 진한 마블링에 견과류를 토픽해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중독적이다.

문의 아르켓(1600-1547)



마크라메를 입은 럭셔리 슈즈

섹시하고 매혹적이면서도 우아한 구두의 대명사, 마놀로 블라닉이 마크라메의 매듭 공예에서 착안한 마크라메 레이스 컬렉션을 선보인다. 마크라메는 13세기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매듭 공예로 다른 도구 없이 오로지 손으로 매듭을 지어 만든다. 특유의 고풋스럽고 럭셔리한 레이스로 재탄생시킨 마크라메 컬렉션은 물슬라이더, 슬링백, 앵클부츠 세 가지 스타일로 선보여 취향에 따라 다채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마놀로 블라닉(02-3443-2113)



라이카와 007의 클래식한 만남

라이카 카메라가 스물다섯 번째 007 시리즈 <007 노 타임 두 다이>의 개봉을 기념해 제작한 스페셜 에디션을 전 세계 2백50세트 한정 수량으로 출시한다. 영화 제작 팀과 긴밀히 협력해 제작한 라이카 Q2 '007 에디션'은 제임스 본드 캐릭터의 품격과 영국의 감성을 반영한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이 돋보이며, 영화의 상징적인 컬러인 오션 그린 색상의 맞춤형 가죽 트림과 특별 제작한 가죽 하드 케이스, 총신 이미지로 장식한 렌즈 캡 등 특별한 요소를 가미했다. 문의 라이카 카메라(1661-0405)





라이트 글로우 스킨

극도로 가벼우면서 자연스럽고
윤기 나는 피부는 여전히 그 위상이
굳건한 트렌드다.

editor LEE MI KYUNG



설화수
퍼펙팅 쿠션
SPF50+/PA+++.
15g×2, 7만5천원

BUDAPEST SELECT

최근 몇 년간 런웨이에 오른 모델들의 피부는 누디하고 내추럴한 피니시가 주를 이룬다. 이번 2021 F/W 시즌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구조적인 패턴의 레더 드레스와 낭만적인 시퀀드레스 그리고 보디라인을 타고 흐르는 니트 드레스까지 디자이너마다 선보이는 룩은 각기 달랐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한결같이 꾸미지 않은 듯 꾸민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고수했다.

제이슨 우, 이자벨 마랑, 스포트막스 등의 쇼에선 모델들의 얼굴에서 엿볼 수 있듯 이번 시즌 베이스 메이크업의 방향은 지난해에 이어 자연스러운 빛과 윤기를 머금은 피부다. 다만 이전보다 수분감을 좀 더 가볍게 표현하기 위해 레이어링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커버력 역시 과하지 않다. 고르지 않은 피부 톤을 말끔하게 정돈하는 정도로 무조건 가볍게! 한마디로 피부 위 수분보다 피부 속 광에 집중한 셈이다. 이런 흐름에 맞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 한 건 바로 내추럴과 모이스처를 앞세운 파운데이션 또는 메이크업 베이스. 헤라의 블랙쿠션이나 설화수의 퍼펙팅 쿠션을 얇게 톡톡 발라 자신이 지난 고유의 피부 빛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테크닉이다.

피부를 완전히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주근깨 등은 비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메이크업 단계는 유지하되 최대한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시즌 피부 표현의 핵심은 얇은 레이어링인 셈. 헤라의 매직 스타터처럼 보



GIORGIO ARMANI

HERMES

MAXM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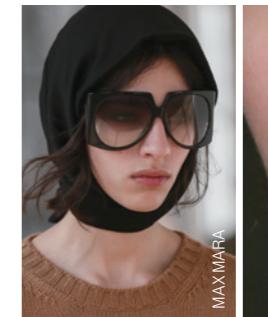
정 효과가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화장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메이크업 단계는 늘어나지만 보정 효과가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얇게 펴 바르면 피부 결점이 어느 정도 가려지면서 여러 번 덧바르거나 추가로 보정하는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벤더나 그린 등 컬러를 피부 상태에 맞춰 선택하면 베이스를 더욱 깔끔하고 예쁘게 다질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덧발라야 하는 경우에는 밀착력이 우수하면서 얇고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맨 살처럼 자연스럽게 보정되는 파운데이션은 이번 시즌 트렌드에 가까운 피부 표현을 완성하기 좋다. 또 스킨케어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제품은 마스크 착용으로 수분을 빼앗기기 쉬운 피부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여기에 루스 파우더를 살짝 덧바르면 피부결이 더욱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마무리된다. 때마침 이번 시즌엔 눈가나 입술 등 어느 한 부위에 글로우를 더해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광채를 살짝 더해 자연스러운 생기를 강조하는 것이 트렌드. 사용하는 도구를 달리하면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 퍼프로 두드리면 얼굴 전체에 균일한 광채를 살릴 수 있고, 브러시를 이용하면 코, 광대뼈, 이마 등 튀어나온 부위에 입체감을 더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깨나 쇄골에도 살짝 두드려 은은한 반짝임을 만끽해보길. 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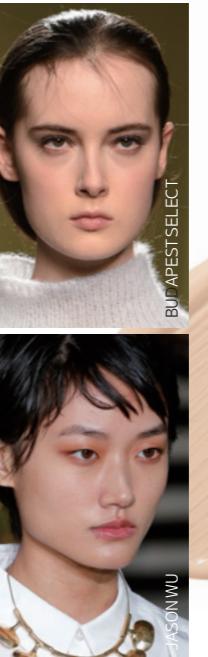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CHOI MIN YOUNG(제작)



헤라
블랙쿠션 SPF34/PA+++.
15g×2, 6만원.



MAXMARA



헤라
블랙 컨실러
스프레드 커버.
#라이트
아이보리,
5g, 4만원.



JASON WU



GIORGIO ARMANI

JASON WU

photographer KIM HEE JUNE
editor CHOI HYANG JIN



가을이 끝나갈 때

깊어진 가을의 분위기를 더해줄 다양한 뉘앙스의 브라운 메이크업.



GRAYISH BROWN

1990년대 메이크업이 유행하며 그레이빛이 감도는 회갈색 아이섀도 역시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돌아왔다. 헤라섀도 듀오 #07 디센트 중 진한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퍼뜨려 밸라 음영을 주고,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살짝 발라 최대한 내추럴하고 깔끔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것.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412 에티켓을 얇게 발라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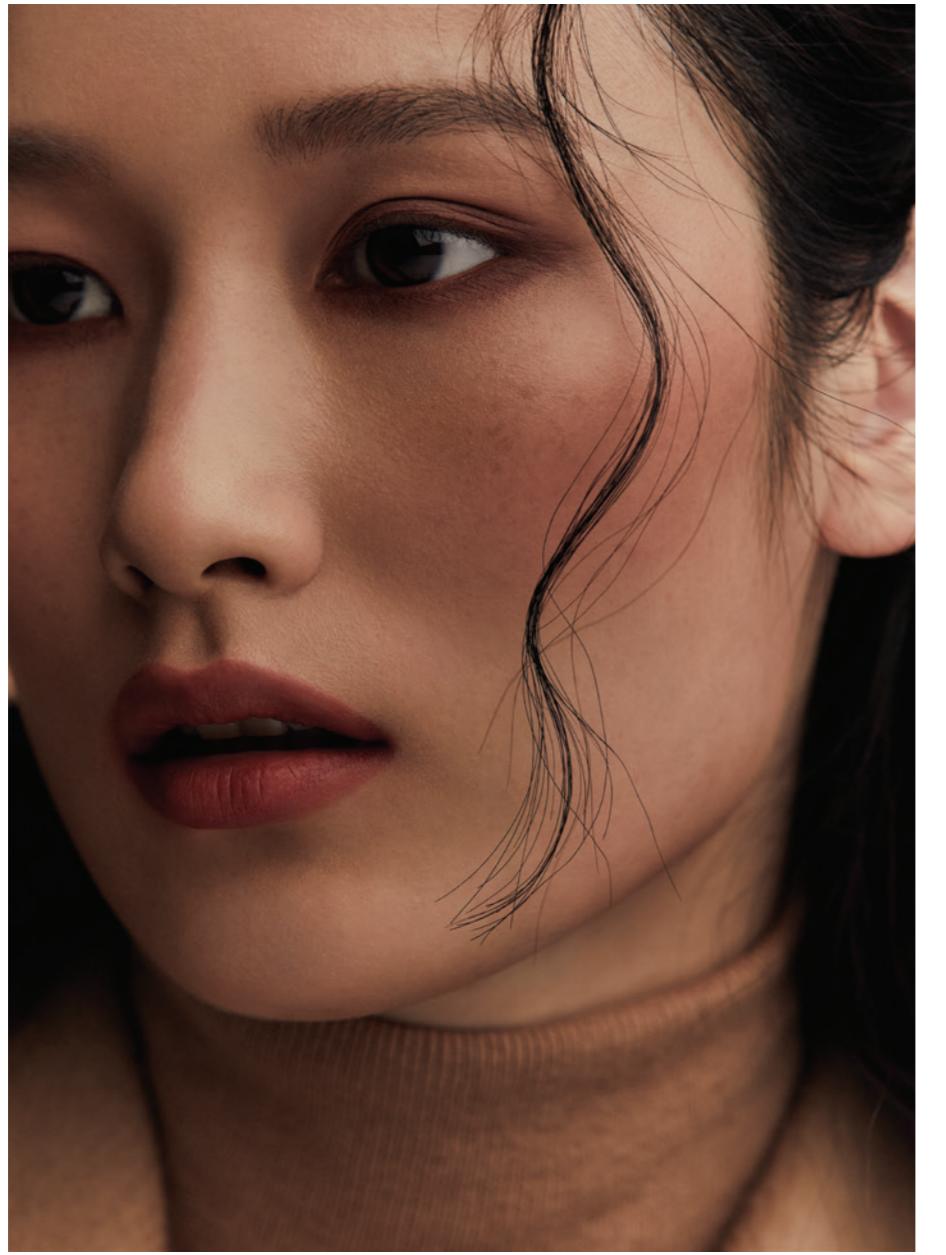
ROSE BROWN

핑크빛이 가미된 로즈 브라운은 이지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단연 최고다. 헤라 샐도 듀오 #01 보니 중 진한 컬러를 아이홀 전체에 바르고, #07 디센트의 포인트 컬러를 아이라인 끝에 살짝 터치해 깊이감을 더한다.
입술에는 헤라 루즈 헤일 #106 로지 클레이어를 바르고 입술 선을 퍼뜨려 부드럽게 표현한다.



DEEP BROWN

붉은 기 없이 매트한 질감의 베이식한 브라운 컬러는 레트로 무드를 풍기는 동시에 세련된 이미지 연출에 그만이다. 헤라 샐도 듀오 #03 인튜이티브 중진한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가볍게 눈매가 길어 보이도록 펴 바르고,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337 로즈 페퍼를 발라 포인트를 준다.



BRICK BROWN

몇 시즌째 지속되는 브릭 컬러의 인기는 사그라지지 않을 기세.

헤라 샘도 듀오 #05 클래시의 진한 컬러를 아이홀 전체에 발라 음영을 표현하고, 블랙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메우듯 아이라인을 그려 눈매를 선명하게 연출한다.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459 버터 스파이크를 바른다.



MODEL: CHOI MYUNG JIN, MAKEUP: JAMIE YOUN,
LEE YOUN SU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미리 만나는 홀리데이 컬렉션

그래픽적인 패키지, 실속 있는 구성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홀리데이 컬렉션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MI KYUNG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90ml, 13만원.
#설화수No.1에센스
#안티에이징부스터
#멀티장벽케어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피부 속 에너지를 깨워 힘있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인 윤조에센스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안티에이징
효과를 배가하고 싶을 때 제격. Youth Master
Technology™로 피부 장벽을 안과 밖에서
다각도로 케어해 피부 보호력과 방어력을
높이고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준다.



설화수 퍼펙팅 쿠션
퍼펙팅 쿠션의 인기 비결은 자연스러운
결점 커버,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 얇고
가벼운 발림성에 있다. 세미마트한
질감으로 얕게 발리고 물들듯 밀착해 하루
종일 피부가 숨 쉬듯 편안한 것이 가장 큰
장점. 부드럽고 탄력 있는 텍스처로 바르는
즉시 모공과 피부 결점을 가려주고 건강한
윤기를 부여하며 피부결을 매끄럽고
건강하게 연출해준다.

설화수 퍼펙팅 쿠션 SPF50+PA+++, 15g×2, 7만5천원.
#럭셔리커버쿠션
#모공커버쿠션
#세미마트쿠션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50ml, 20만원.

#탄력안티에이징

#인삼6000배농축한진세노믹스™

#피부자생력강화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자음생에센스는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진귀한 인삼 사포닌을

6천 배 이상 농축한 진세노믹스™를 함유해

피부 자생력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피부로 가꿔준다.

미세한 인삼 캡슐이 피부에 닿는 순간 빠르게

흡수되어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 속부터

탄력을 채우고 노화의 흔적을 덜어준다.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익스트렉트 에센스

제주 돌송이 차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첫잎을
100일간 자연 발효와 숙성한 후,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24시간 동안 추출하여 100% 원액만을
고스란히 담은 워터 에센스. 발효차의 귀한

카테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뛰어난
항산화 효능을 선사하며, 핵심 노화 요소를

케어하여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피붓결과
탄력, 투명도를 개선한다. ⓘ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익스트렉트 에센스. 150ml, 19만9천원.

#100일발효숙성

#100%단일성분

#항산화안티에이징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정한 미인이라면 보이는 곳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을과 겨울을 보내는 방법을 전수하는 전신 케어 가이드.

photographer KIM HEE JUNE(인물),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두피와 모발: 탈모를 막을 것

남성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며 대기가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계절성 탈모가 일어나기 쉽다. 여름내 강렬한 자외선에 자극받아 약해진 두피와 모근은 과다한 각질이나 탈모를 유발하기도 한다. 모발이 하루에 50~70가닥 이상 빠진다면 만성 탈모일 수 있으므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모발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고 두피가 예민해진 것 같다면 약해진 장벽을 강화하고 건조한 두피를 촉촉하게 지켜주며 모발에 힘을 더해 탈모 증상을 막는 제품을 써야 할 때다.

1.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
녹차 추출 성분이 탈모 증상을 완화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두피의 장벽을 강화하며 검정콩 추출물이 모발에 힘을 실어준다. 380ml, 3만7천원.
2.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헤어 모이스처라이저**
먼조한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4중 레이어링 보습 코팅으로 모발을 매끄럽게 가꾸는 두피와 모발용 탈모 완화 수분 로션. 150ml, 3만원.



눈가: 나이를 지울 것

마스크 착용으로 연일 자극받는 입과 턱 주변을 살피느라 눈가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은가? 건조한 이맘때, 눈가를 소홀히 하면 지친 탄력을 잃어 주름이 생기고 살이 거져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눈가에 힘을 더해주는 안티에이징 아이크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골라 쓰는 것. 영양 성분이 과하거나 모자랄 경우 트러블이 생기거나 효과가 덜할 수 있고, 자신과 맞지 않는 성분이 든 제품은 눈가를 자극해 노화를 촉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1.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아이크림**
리얼 콜라겐, BX 펫타이드, 쌀 EGF와 두 가지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눈가 피부 탄력 지지층을 채워 눈가 탄력을 눈에 띄게 개선해준다. 25ml, 10만원.
2. **헤라 시그니아 아이 트리트먼트**
나르시스 식물세포의 생명력으로 눈가 O라인에 생기를 더하는 눈가 전용 트리트먼트. 30ml, 20만원.

얼굴: 탄력을 되찾을 것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거칠고 푸석해진 피부나 깊어진 팔자주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은 저진 얼굴선을 끌어올리고 깊어지는 주름과 푹 꺼진 피부를 단단하게 되돌리는 인티에이징 탄력 케어. 염선한 영양 성분으로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는 것은 물론, 마스크 속에 감춰뒀던 피부에 탄탄한 리프팅 효과를 부여하는 이들 제품의 인기는 마스크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다. 안티에이징 제품은 무겁고 진득할 거라는 편견을 깨고 가볍게 발리면서도 효과는 빠른 앰플이나 에센스가 특히 사랑받는 중.

1.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고함량 레티놀 성분으로 식약처 주증 개선 기능성을 인정 받아 탁월한 주증 완화 효과는 물론, 전방위적인 안티에이징 효능을 보인다. 20ml, 13만원.

2.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하이드로 앰플
피부 전문가 컨설 에스테틱 라인의 노하우를 담아 건조로 인해 도미노처럼 심화되는 노화를 집중케어하는 수분탄력 앰플. 5ml×12ea, 12만원.



몸: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꿀 것

피부의 피지샘이 얼굴보다 적어 조금만 관리에 소홀해도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운 몸. 이맘때가 되면 으레 온몸이 간지럽거나 각질이 하얗게 일어난다면 지금 바로 바디 케어 제품을 바꿔야 한다. 건조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굽고 문지르는 등의 자극이 반복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늙어주 글쭈글하게 처지기 때문.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없애면서도 유분을 적당히 남겨 피부가 메마르지 않게 해주는 바디 워시와 고보습 성분으로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지켜줄 바디 크림을 챙길 것. 은은한 향으로 숙면에 도움을 준다면 금상첨화다.



1. 헤라 벨벳 나이트 퍼퓸드 바디 로션
벨벳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세슈얼한 플로럴 향기를
남기는 퍼퓸드 바디 로션, 250ml, 5만원.

2. 헤라지일 블루밍 퍼퓸드 샤워 젤
하아루로산을 함유한 풍성하고 가벼운
거품으로 샤워 후에도 당기지 않은
촉촉함과 매혹적인 자일 향의 여운을
남기는 샤워 젤, 270ml, 4만7천원.



몸속: 보이지 않는 곳의 건강까지 챙길 것

민감한 여성의 몸은 조금만 방심해도 균형을 잃기 쉽다. 가장 세심하게 케어해야 할 곳이 바로 Y존.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생리 주기에 따라 분비물이 늘어나고 냄새가 나는 등 달갑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다면 Y존을 씻는 방법부터 바꿔보자. 샤워 젤이나 비누 대신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줄 Y존 전용 청결제로 자극 없이 분비물을 노폐물을 씻어내야 한다.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몸속까지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인삼과 녹용 등 민을 만한 성분을 응축해 만든 이너 뷰티 제품 하나면 간편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1.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자극받기 쉬운 Y존의 피부 장벽을 케어해 냄새와
분비물을 줄이고 피부 톤을 개선해주는 Y존 전용
세정제, 200ml, 2만7천원.

2.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녹용, 인삼열매, 침향 등 진귀한 5대 원료를 정성스럽게
담아 새로운 활력을 전하는 프레스티지 인삼열매-녹용
앰플, 525g(25g×21앰플), 84만원





2021 최고의 립컬러

올해 가장 사랑받은 헤라와 설화수의 베스트 립 제품, 베스트 4를 공개한다.

LOOK 1. FLARE RED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예쁜 색으로 물들여 인기를 끌고 있는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의 새로운 컬러 #56 플레이어 레드는 번트 오렌지 컬러로 2021 F/W 트렌드에 딱 맞는 제품.



FACE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펴 발라 윤기가 도는 세미매트 피부로 깨끗하게 정돈한다.

EYES 헤라 새도 듀오 #04 피��를 눈꼬리 쪽에 라인을 그리듯 발라 음영을 준다.

LIPS 입술에는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 #56 플레이어 레드를 입술 선을 살려 꽉 차게 바른다. 보다 선명한 발색을 원할 경우 두세 번 덧발라 농도를 조절한다.



LOOK 2. LINGERIE

투명한 윤기가 도는 여릿한 누드 핑크 컬러의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 랜제리는 출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베스트셀링 컬러.



FACE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펴 발라 타고난 듯 투명한 윤기를 연출한다.

EYES 헤라 새도 듀오 #01 보니의 밝은 컬러를 눈두덩이에 가볍게 바르고, 마스카라로 속눈썹의 결을 살린다.

LIPS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 랜제리를 듬뿍 발라 글로시한 핑크 립을 완성한다.



LOOK 3. PAMPAS

데일리 립 컬러로 톤이 다운 된 핑크 톤의 MLBB 컬러만큼 좋은 것은 없다. 여기에 주홍빛 잉크를 한 방울 떨어트린 듯 약간의 붉은기를 더한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435 팜파스는 어떤 피부톤에나 잘 어울리는 컬러다.



헤라블랙 파운데이션
SPF15/PA+, 35ml,
6만원.
헤라섀도 듀오. #07
디센트, 4g, 3만8천원.
헤라센슈얼 파우더
매트. #435 팜파스, 5g,
3만5천원.

FACE 헤라블랙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펴 발라 세미매트 피부를 표현한다.

EYES 헤라섀도 듀오 #06 라이커블의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에 넓게 펴 바르고 #07 디센트의 진한 컬러를 눈꼬리 끝과 언더 래쉬에 발라 깊은 음영감을 준다.

LIPS 헤라센슈얼 파우더 매트 #435 팜파스를 입술에 꽉 차게 바른 뒤 입술 선을 살짝 퍼뜨려 부드럽게 표현한다.



LOOK 4. ROSE VEIL

톤이 다운된 핑크 컬러인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 #39 로즈 베일은 내추럴한 컬러에 적당한 윤기가 돌아 데일리 립 메이크업에 제격으로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설화수 진설 세럼
파운데이션 SPF25/
PA++. 30ml, 12만원.
헤라섀도 듀오. #02
이지고잉, 4g, 3만8천원.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 #39 로즈 베일,
3g, 4만원.

FACE 설화수 진설 세럼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펴 발라 탄력이 느껴지는 세미매트 피부를 연출한다.

EYES 헤라섀도 듀오 #02 이지고잉의 진한 컬러로 깊이감 있는 눈매를 연출하고, 블랙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우듯 아이라인을 그려 눈매를 또렷하게 연출한다.

LIPS 입술에는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 #39 로즈 베일을 가볍게 발라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핑크 립을 완성한다.

SENSUAL SCENT MATCH

매로는 부드럽고 순수하게, 매로는 관능적으로 여심을

뒤흔드는 취향저격 가을 향수 4가지.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MI KYUNG



헤라 지일 오 데 퍼퓸, 40ml, 4만2천원.

#머스크플로럴
#순수하고관능적인
#팜므파탈의매혹

헤라 지일 오 데 퍼퓸

매혹적인 머스크 베이스에 그린 플로럴 계열의 향이 어우러져 순수하면서도 정열적인 잠재된 관능미를 깨우는 신비로운 향.
머스크에 은은한 장미 향이 더해져 익숙하면서 꾸미지 않은 듯 꾸민 자연스러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헤라 벨벳 나이트 오 드 퍼퓸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매혹적인 향으로 숨어 있던 여성미를 드러내는 플리워 오리엔탈 계열의 향수. 리코리스, 아尼斯,
베르가모트가 매력적인 첫인상을 선사하며 부드럽고 포근한 머스크와 바닐라로 이뤄진 베이스 노트, 아이리스와
바이올렛이 조화로운 미들 노트가 더해져 신비롭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해준다.

헤라 벨벳 나이트 오 드 퍼퓸, 40ml, 6만원.

#플로럴오리엔탈
#여성스러운
#신비로운

구딸파리 떼뉴드스와레 50ml, 19만8천원.

#유혹의향기
#이브닝드레스
#구르망시프레



구딸파리 떼뉴드스와레 오드퍼퓸

'이브닝드레스'라는 뜻의 떼뉴드스와레는 우아하면서도 달콤한 구르망 시프레 계열의 향수로, 바디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모습처럼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향기를 발산한다.

구딸파리 떼뉴드스와레 바디 기프트 세트.
떼뉴드스와레 샤워오일 250ml + 떼뉴드스와레 바디크림
190ml + 떼뉴드스와레 오드퍼퓸 5ml + 떼뉴드스와레 바디크림
20ml + 떼뉴드스와레 바디크림 7mlx6입, 18만5천원.

#달콤한유혹의향
#실키한텍스처
#대담하고관능적인



구딸파리 떼뉴드스와레 바디 기프트 세트

대담하면서도 달콤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떼뉴드스와레의 향을 담은 샤워오일과 바디크림 세트.
신비롭고 매력적인 향을 남기며 바디 피부를 벨벳처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준다. ⓘ

에스테틱 케어의 완벽한 마무리

스킨케어의 완성은 자외선 차단.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선 세럼은 스킨케어 기능을

강화해 에스테틱 라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자외선을 확실히 차단해 모든 노화에 철저히 대응한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선 세럼

①

광 노화는 물론 열 노화까지 꼼꼼하게 디펜스

피부 온도가 상승하면 유해 산소가 증가하고 피부 속 항산화 성분이 감소해,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열 노화가 시작된다.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선 세럼은 매실과 황금 추출물이 들어 있어 피부 속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케어해 광 노화뿐 아니라 열 노화까지 차단해준다.

②

수분 쉘드 레이어의 탁월한 스킨케어 효과

에스테틱에서 관리받은 듯 탁월한 스킨케어 효과를 발휘하는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라인의 핵심 유효 성분인 BX 팁타이드, 리얼 콜라겐, EGF 성분을 모두 함유해 에스테틱 라인의 효능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수분 쉘드 레이어가 피부 위에 얇은 수분 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한번 더 보호해준다.

③

피부에 산뜻하게 흡수되는 세럼 텍스처

마치 수분 세럼처럼 피부에 달자마자 쑥 스며들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촉촉한 세럼 텍스처라 발랐을 때 선크림 특유의 답답한 느낌 없이 피부가 편안하다.

추천 포인트

POINT 1

광 노화는 물론
열 노화까지
한 번에 케어!

POINT 2

탄력 성분과
수분 막이 발휘하는
스킨케어 효과

POINT 3

산뜻한
세럼 텍스처

“수분 세럼을 바른 듯 가볍게 흡수되어 자외선 차단제를 꺼리는 사람도 사용하기 좋을 듯.”

-〈마리끌레르〉뷰티 에디터 김현민

“쿨링 효과가 있는 성분을 함유해서인지 피부 속까지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느낌.”

-뷰티 컨텐츠 디렉터 김희진

“텍스처가 산뜻해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아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도 좋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아영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선 세럼
SPF40/PA++

자외선은 물론 적외선까지
차단해 광 노화와
열 노화를 막고, 에스테틱
성분이 피부 탄력을
강화해주는 안티에이징
선 세럼. 40ml, 4만8천원.

프리메라 미라클 씨드
에센스
프리메라 워터 에센스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로,
피부 속부터 작용해
건강하고 맑은 안색으로
가꿔준다.
230ml, 5만5천원.



건강한 피부를 위한 3단계 미라클 솔루션

일상의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속부터 건강한 피부로 가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여기 있다. 3단계 미라클 솔루션으로 피부에 맑고 건강한 에너지를 부여하는 프리메라 미라클 씨드 에센스가 그 주인공이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추천 포인트

POINT 1

피부 각질
10층^{*}까지 도달하는
놀라운 흡수력

POINT 2

7가지**
피부 개선 효과

POINT 3

10 Free
착한 성분

프리메라 미라클 씨드 에센스

①

피부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로터스 씨드 액티베이터™

외부 자극에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연꽃의 자정 능력을 고스란히 담은 로터스 씨드 액티베이터™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 어떤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준다.

②

빠른 수분 진정 효과를 발휘하는 슈가 플루이드

피부 속 수분 길을 열어 피부 구석구석 수분을 채워주는 슈가 플루이드 성분을 함유해 수분을 빠르게 채우고 수분 진정 효과를 선사해 자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속 건조를 해소해준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무려 피부 각질 10층^{*}까지 도달하는 빠르고 강력한 흡수력이 입증됐다.

③

맑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비타민 컴플렉스

비타민 B₃(나이아신아마이드), 프로비타민 B₅(판테놀), 비타민 C 유도체가 결합된 비타민 컴플렉스가 피부를 보호하고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부 둔을 맑고 환하게 개선해준다.

*각질층 10회 테이핑 테스트 결과 기준
시험 대상: 만 25~45세 여성 31명(평균 36.1세)
시험 기간: 2020년 11월 2일~12월 2일
시험 기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주)

**속보습, 피부흡수, 세안후 피부당김, 피부톤,
피부탄성력, 모공먼저, 피부붉은기

“성분부터 효과까지
믿고 쓰는 몇 안 되는
제품 중 하나.”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희진

“스킨케어 루틴에 이 제품
하나만 더해도 차원이 다른
촉촉함을 느낄 수 있다.”

-뷰티 컨텐츠 디렉터 이성진

“출산 후 칙칙하고
푸석했던 피부가 한결
매끄럽고 환해졌다.”

-뷰티 컨텐츠 디렉터 이미경

월경 전 불편함과 혈행 개선을 동시에

여성 건강의 핵심은 혈행과 월경 전 불편한 상태 관리. 바이탈뷰티 프림로즈는

혈행을 개선하고 면역 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바이탈뷰티 프림로즈

①

여성의 혈행,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한 감마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은 우리 몸의 혈행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는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이다. 바이탈뷰티 프림로즈에는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한 달맞이꽃 종자유와 보라지 종자유가 들어 있어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한 콜레스테롤을 개선과 혈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월경 전 신체 불편 증상과 피부까지 고려한 건강기능식품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 행동의 변화가 월경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월경전증후군(PMS). 바이탈뷰티 프림로즈에 풍부하게 함유된 감마리놀렌산은 월경 전 변화에 따른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활력 있는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면역 과민 반응에 따른 피부 상태에도 작용해 건강한 피부로 가꿀 수 있다.

③

식물성 연질 캡슐 사용

프림로즈의 캡슐은 동물성 젤라틴이 아니라 식물성 연질 캡슐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추천 포인트

POINT 1

월경 전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POINT 2

혈행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POINT 3

면역 과민 반응에 따른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늘 무겁고 피곤하던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긴 듯하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월경 전이면 항상 가라앉던
컨디션이 한결 좋아진
느낌이 듣다.”

-〈마리끌레르〉뷰티 에디터 김상은

“아침저녁으로 하루 두 번
복용하는 것만으로 여성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바이탈뷰티 프림로즈
보라지종자유와
달맞이꽃종자유의
감마리놀렌산이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여성의
월경 전 불편현상과
면역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상태개선에 도움을
줄수있는 여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60g(30일분), 5만원.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방문판매 1위* 보습 스킨 & 로션 강력한 영양 보습감으로 돌아온다

방문판매 경로 6년 연속 보습 스킨/로션 카테고리 판매 1위를 기록한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이 더욱 풍부한 영양 보습 성분을 담아 업그레이드되었다. 피부의 수분 고갈을 해소하고 영양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를 더 오래 지속시켜줄 보습 히어로를 소개한다.

*방문판매 경로 보습 스킨, 보습 로션 5년 연속 구매액 1위(KANTAR 보습 스킨/보습 로션 시장 구매액, 2015~2020년 기준)



WHAT'S DIFFERENT

더 깊은 보습감과 풍부한 영양감을 선사할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향장이 꼼꼼히 살펴보았다.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 이렇게 달라졌다

POINT 1

더 강력해진 영양 보습 성분
심화된 피부 건조로 인한 수분 고갈을
해소하는 설화수만의 영양 보습
성분인 자음보습단™과 영양훈증수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POINT 2

더 깊어진 영양 보습감
쫀득한 젤 타입 스킨 제형과 부드럽고
풍부한 영양감이 느껴지는 애벌전
텍스처가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더
오래 머물러 피부 바탕을 건강하게
다져준다.

POINT 3

**더 럭셔리한 패키지와
사용 편의성 개선**
골드 컬러와 미세한 패밀리 퍼포먼스의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평소 스키н을 더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자음수의 용량이 기존
125ml에서 150ml로 증량되었다.

단단한 기본의 힘

제아무리 고기능성 제품과 각종 시술이 인기를 얻어도 건강한 피부의 기본은 보습과 영양 공급이다.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을 풍부하게 담은 제품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는 데만 충실했던 피부가 확연히 편안하고 건강하게 빛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설화수의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은 바로 이런 스킨케어의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한 기본기는 빛을 발하는 법. 방문판매 경로 6년 연속 보습 스킨/로션 부문 1위를 지켜내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초 제품으로 사랑받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수많은 열혈 소비자를 사로잡은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이 더욱 탁월한 영양 보습감을 갖추고 한 단계 진보했다. 기존의 편안하고 산뜻한 사용감과 풍부한 영양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럭셔리한 보틀 안에 담긴 영양 보습 성분은 보다 강력해졌다.

시간과 정성을 담은 설화수만의 처방

업그레이드된 영양 보습 핵심 성분은 자음보습단™. 설화수 한방과학연구센터의 최신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탄생한 자음보습단™은 수분 공급과 진정에 탁월한 다섯 가지 원료를 조합해 심각한 피부 건조로 인한 수분 고갈을 해소해준다. 여기에 당귀와 천궁을 무려 18시간 훈증해 모은 순수한 영양훈증수가 피부에 수분과 영양 성분을 전달해 오랜 시간 영양 보습감으로 꽉 찬 피부로 지켜준다. 쌀에 따라 밥맛이 달라지듯, 매일 사용하는 기초 제품이 피부 상태를 결정한다. 근본적인 보습과 영양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이 그 해법이 되어줄 것이다.

TIP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의 핵심 성분

- | | |
|------------------|---|
| 1. 자음보습단™ | 건조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고
진정시켜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지켜준다. |
| 2. 영양훈증수 | 예로부터 전신의 미세 순환을
도와 피부가 고와지는 효과로
여성에게 많이 처방하던 당귀와
천궁을 18시간 훈증해 추출한
영양 보습 성분. 원료가 가진
영양 성분과 18시간에 걸쳐
훈증하는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영양훈증수는 수분과 영양이
피부에 오래 머물도록 돋고,
자음보습단™과 같이 처방하면
피부 개선 효과가 더욱 탁월하다. |



SURVEY RESULT

업그레이드 된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은 99%와 97%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소비자 만족도를 기록했다.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편안하고 촉촉하게
보습하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자음보습단™과
영양호흡증수를 담아
건조로 인한 수분
고갈을 해소해 피부
비 탕을 건강하게
다져준다. 품득한 젤
타입 텍스처가 피부에
매끄럽게 스며드는
스킨. 150ml,
6만8천원.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을
사용한 소비자 만족도



바를 때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사용 만족도
피부가 촉촉함	100%
피부에 영양감	99%

제감 효과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사용 만족도
촉촉하고 보습 충만	99%
피부 편안함과 진정	97%
보습 지속력	99%
다음 단계 흡수력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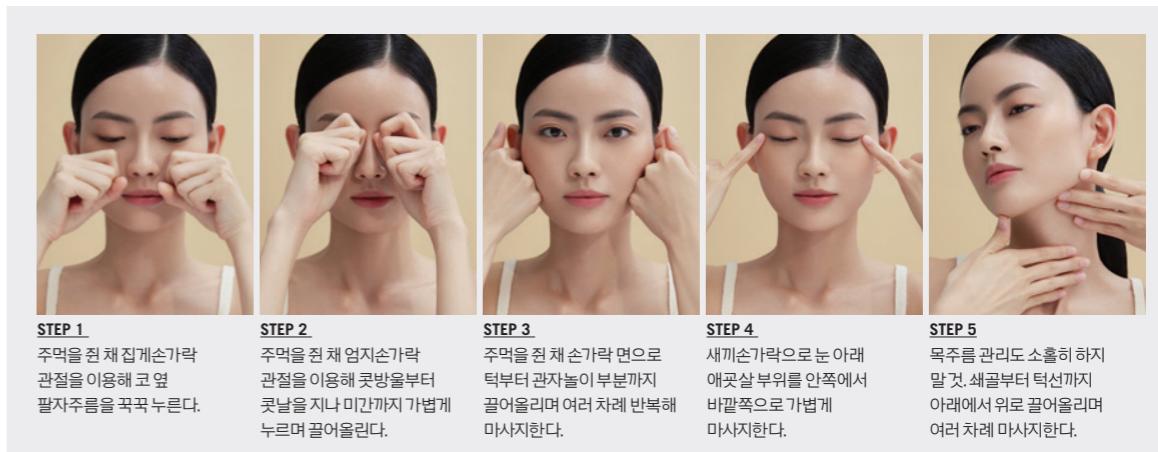
바를 때	설화수 자음유액 퍼펙팅 사용 만족도
피부가 촉촉함	99%
피부에 영양감	99%

제감 효과	설화수 자음유액 퍼펙팅 사용 만족도
촉촉하고 보습 충만	100%
피부 편안함과 진정	100%
보습 지속력	97%
다음 단계 흡수력	96%

*조사 기관: (주)리모션 / 조사 기간: 2021년 9월 3일~ 16일/
조사 대상: 대한민국 35~49세 여성 70명

HOW TO USE

자음수 퍼펙팅을 화장솜에 덜어 피붓결 방향대로 닦아내듯 바르고, 자음유액 퍼펙팅을 이마와 양쪽 뺨에 덜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바르면 스킨케어를 간단히 끝낼 수 있다. 점점 건조해지는 겨울철, 좀 더 풍부한 보습감에 탄력감까지 더하고 싶다면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을 듬뿍 바른 후 다음 마사지를 따라 해볼 것.



STEP 1 주먹을 쥔 채 집게손가락 관절을 이용해 코 옆 팔자주름을 꾹꾹 누른다.
STEP 2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 관절을 이용해 콧방울부터 턱부터 관자놀이 부분까지 콧날을 지나 미간까지 가볍게 누르며 끌어올린다.
STEP 3 주먹을 쥔 채 손가락 면으로 새끼손가락으로 눈 아래 애곳살 부위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누르며 끌어올린다.
STEP 4 새끼손가락으로 눈 아래 애곳살 부위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누르며 끌어올린다.
STEP 5 목주름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 것. 셰골부터 턱선까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며 여러 차례 마사지한다.



MODEL: KIM MI HEE, MAKEUP: LEE YOUN SUN, HAIR: BAEK CHANG HOON(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STYLING: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42 N°637

N°637 43



중년 여성 건강 주의보

광범위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겪는 여성의 중년기. '모두가 힘들다고 하니까' 하며
인내하기에는 너무 괴롭고 힘들지 않은가? 중년기는 물론, 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참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년 여성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간기와 폐경기. 유쾌하기보다는 불편한 일이 많은 시기라 그런지 이에 대해 하심단회하게 이야기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여성의 일생 가운데 3분의 1, 길게는 40%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작정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으나, 어차피 겪을 변화라면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난소의 기능이 쇠퇴해 정상적인 월경이 중지되는 현상을 폐경이라고 정의하는데,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폐경 단계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 여성들은 신경학적 증상, 수면장애, 우울 등의 단기적인 정신 건강의 변화뿐 아니라 생명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심장과 뼈 건강에 변화를 겪게 된다. 혈관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호르몬 환경이 남성과 비슷해지며 고혈압과 고지

혈증 나아가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이 큰 데다 골량이 급격하게 줄어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짚을 때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은 폐경기를 지나며 점점 증가해 60세를 넘어서면 남성을 앞지르고, 50세 이상 여성의 30~40%가 골다공증 증상을 보이며 골다공증 이전 단계인 골감소증까지 합치면 70~80%까지 유병률이 올라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는 간기와 여성 건강의 분수령이라는 말이 결코 억지스러운 호들갑이 아님을 시사한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소한 증상들도 다수 나타난다. 풀무원로하스가 성인 여성 2천3백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기를 겪은 여성들은 공동적으로 급격한 피로(93.9%)와 근육통(84%)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40대는 신경질(86.3%), 50대는 질 건조(81.8%), 60대 이상은 질 건조(83.0%)와 신경질(79.6%)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답했다. 불면과 두통, 어지럼 등도 응답자의 70%가 넘는 여성들이 경험했다고 답했을 만큼 흔한 증상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무려 68.8%에 달하는 여성이 심각한 간기 증상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그러므로 중년기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경이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폐경 이행기부터 식습관을 조절하고,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약을 복용해 정상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미리 골밀도를 검사해 필요한 경우 칼슘이나 비타민 D 제제를 복용해야 하며 평소 캐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요실금 예방에 도움이 된다. 수면장애를 피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충분히 찍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챙겨 먹어야 할 것도 있다.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절반은 동물성 단백질로, 나머지는 콩이나 우유, 어패류 등으로 구성해 매끼 먹어야 한다. 채소는 매일 300g 이상, 특히 녹황색 채소는 100g 이상 섭취하고, 설탕과 소금의 섭취량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할 경우 호르몬 문제나 건강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다. 바이탈뷰티의 자음미단은 중년 여성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아 행복감과 아름다움을 더해줄 프리미엄 홍삼화이다. 홍삼의 유효 성분을 최대로 응축한 천삼화 홍삼 추출물에 연꽃 배아, 제주 조릿대, 산수유, 당귀, 감초 등 10가지 전통 식물 추출물을 더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해소해준다. 이 밖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항산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PHOTOGRAPHY: www.gettyimagesbank.com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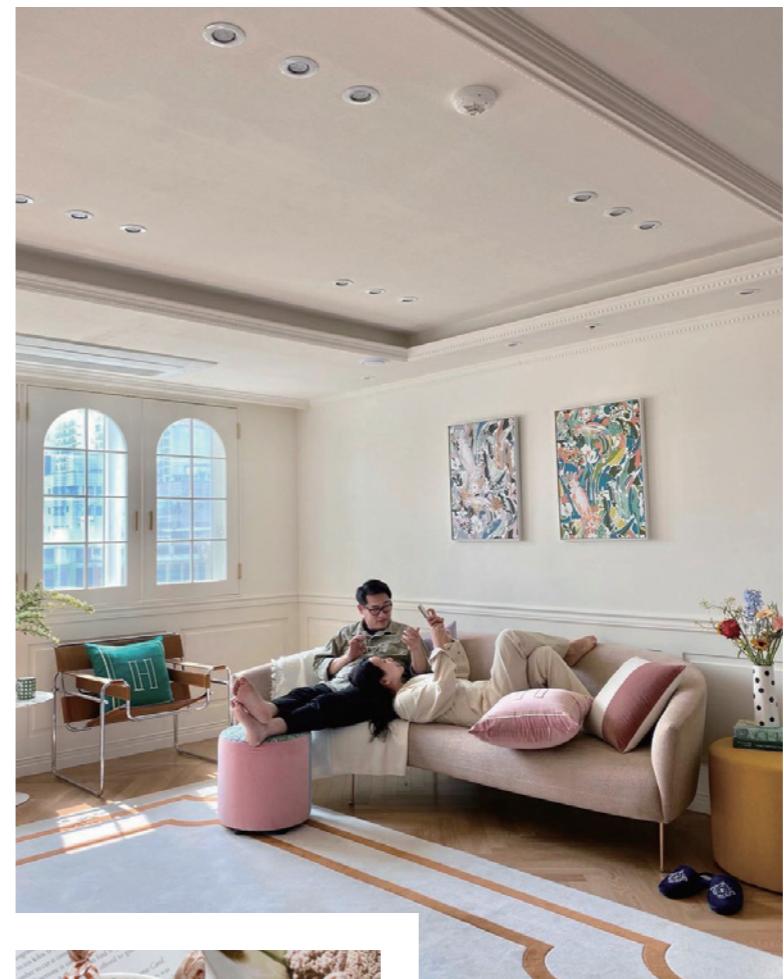


매일 새로운 집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치형 창과 양쪽으로 열리는 거실 문,
그리고 이국적인 키친 다이닝 소파. 해외의 주택 인테리어 시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 집은 주인의 취향에 맞춰 조금씩 변해 더욱 매력적이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tw_letter
최미진

윤디자인 그룹에서 10년 동안 폰트 디자인
디렉터로 근무한 뒤 2017년 타이포그래피 전문
아트 스튜디오 타입세트 컴퍼니를 설립해 현재
1백50여 개의 라이선스 폰트 디자인을 공급하는
중. 자체 개발한 폰트를 이용해 리빙 브랜드
tw레터도 운영하고 있다.

통창을 막아 아치창을 만들고, 안방에 양쪽으로 열리는 문을 달았죠. 이 덕분에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단독주택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교회 탑이 보이는 전망도 퍽 이국적이어서 요리를 하거나 쉬면서 창밖을 내다보는 게 즐겁답니다.”

집 안의 이국적이고 포근한 분위기를 완성해주는 아치형 창문은 건축가인 남편과 그녀가 머리를 맞대고 고른 것. 부부는 세 번의 이사와 셀프 인테리어를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하우를 쌓아왔고, 그 경험은 이 집 곳곳에 녹아 가족만의 보금자리를 완성하는 데 일조한다. 두 사람이 전세로 얻었던 신혼집에서는 벽이나 바닥 대신 가구를 바꾸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인테리어의 전부였다고. 두 사람의 취향으로 채운 두 번째 집은 여행을 좋아하던 부부가 동남아시아의 한 리조트에서 영감을 받아 고른 검은 바닥과 몰딩이 워낙 강렬해 호불호가 명확히 갈린다는 점과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어



이사온 것이 이집. 비어 있던 집을 매입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했고, 베란다를 확장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을 골라 아낀 비용으로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었다. 이전 집의 실패 경험을 거울삼아 베이지 톤과 내추럴 우드의 벽, 자연스러운 헤링본 패턴의 바닥을 골라 '바탕은 바탕다워야 한다'는 배움을 실천하기도 했다. 지금 부담 없는 벽과 바닥으로 이뤄진 공간을 채우는 것은 김미진 대표의 감각이 가득 담긴 소품들이다.

사실, 이 집은 촬영 전날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키친 다이닝 소파는 스카이블루 패브릭으로 깔끔하게 있었고, 거실에는 러그가 깔려 있었다. 촬영을 앞두고 소파를 그린 컬러로 바꾸고, 아치형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잘 반사될 수 있도록 러그를 치웠다. 힘들었겠다는 말에 두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소파의 좌판과 등받이는 나무로 된 것과 다양한 색의 패브릭으로 감싼 것 등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처음부터 벨크로 테이프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게 고안했다. 의자나 소파 등은 들이서 충분히 옮길 수 있도록 가벼운 것으로 구입했고, 침실의 아치형 아트 월에는 커튼을 달거나 떼어 언제든 변화를 줄 수 있다. 침대 맞은편의 벽난로는 이전 집에 살 때 만든 것인데, 어디든 들 수 있도록 같은 웨인스코팅으로 벽을 장식했다. "계절이 변하면 옷을 갈아입듯이, 집에도 철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인테리어를 하면 이사갈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가구나 벽 대신 패브릭이나 소품 등만 바꿔도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사실 본인의 취향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취향은 늘 바뀌기 마련이고요. 그러니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패브릭이나 가구 배치 등을 바꾸며, 어떤 디자인일 때 내가 가장 기분이 좋은지, 가족들이 사용하기에 뭐가 더 편한지 등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늘 변하는 집을 보며 어린 딸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한다. 유명한 미술 학원에 보내거나 비싼 전시를 보여주는 대신, 조금씩 달라지는 집 안의 배치와 컬러를 보며 심미안을 키울 수 있게 했다.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쿠션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도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해두는 것도, 밖에 놀러 나갔다가도 수시로 집에 가지고 말하는 것도 딸아이가 집을 얼마나 좋



아하는지를 대변할 터다.

오랫동안 폰트를 만들고, 폰트로 소통해온 그녀에게 이 집은 어떤 폰트에 비유할 수 있을까. 최미진 대표는 이 집과 본인 모두 보도니체를닮았다고 말한다. <보고>나 <바자> 등의 패션 잡지 제목에 자주 쓰이는 보도니체는 이탈리아 서체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서체. 그 자체로도 깔끔하고 멋스러운데다, 어떤 이미지나 디자인과 만나도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기본은 다른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명, 가구, 패브릭 등과 어우러지며 다양한 이미지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이 집 역시 보도니체와 비슷하다. 최미진 대표도 명확한 자신만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기업과 멋진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플렉서블한 사람, 보도니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예쁜 집이 주목받으며 SNS를 통해 홈스타일링에 관해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최미진 대표. 앞으로도 홈스타일링에 관심이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을 들으니, 이 집의 내일이 사뭇 기대된다. Ⓜ



TIP

최미진 대표가 말하는 홈스타일링 노하우

1. 계절에 맞는 패브릭 제품 고르기

계절에 따라 옷을 정리하듯 집이라는 공간에도 계절감을 부여하자. 여름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의 리넨 쿠션과 커튼으로 청량감을 주고, 겨울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벨벳 쿠션과 블랭킷, 러그를 활용해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으면 큰 공사 없이도 집을 다채롭게 꾸밀 수 있다.

2. 오브제와 액자 이용하기

가족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아트 북, 그릇이나 향수 등의 오브제를 실내에 두는 것만으로도 좋은 방법이다.

멋진 홈스타일링은 완성된다. 작은 공간에 좋아하는 오브제를 모아두고, 원하는 무드에 따라 바꿔주면 내 취향이 듬뿍 담긴 그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3. 식물과 꽃으로 힐링

싱그러운 푸른 식물과 아름답게 핀 꽃은 공간에 생동감을 준다. 계절에 맞는 생화를 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면 구성이 잘된 조화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대의 공간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을 지양하며 평등의 가치를 널리 퍼뜨리는
공간을 찾았다.

editor LIM SU AH
photographer LEE SEOK YEONG



더클로젯

합정동의 케어 프렌들리 바 '색다른 한잔'의 대표가 '더클로젯'을 오픈했다. 커밍아웃의 어원인 'coming out from the closet'을 본떠 이름 지은 곳으로, 스스로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소수자들이 벽장에서 나와 주류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카페를 겸한 펍으로 운영 중이며, 커피, 수제 맥주, 와인, 위스키 등 다양한 마실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비건 타라미수'나 '홀임자 바스크 치즈케이크' 등의 디저트도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다. 다양한 색이 뺨어나가는 조명부터 케어 프렌들리 아티스트의 곡으로 채운 플레이리스以至于. 소수자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 없는 다양성을 인지하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꾸며나가는 중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4길 25 지하 1층
영업시간 화~일요일 13:00~22:00, 월요일 휴업
문의 @thecloset_vv



짱쪽바

혜화동 뒷골목에 '#모든차별에반대한다'라는 해시태그를 내건 비건 옵션 바 '짱쪽바'가 있다. 은은한 인센스 향기와 에스닉한 인테리어가 어우러져 태국 현지 분위기를 흡뻑 풍긴다. 포트와인, 수제 맥주, 위스키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을 준비하고 '마라 크림 떡볶이'와 '칠리 만두' 등 입맛을 돋우는 비건 안주를 판매한다. 인권에 관심이 많은 대표가 운영하는 곳으로, 차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공간을 새롭게 바꿔가는 중이다. 단순히 문구를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된 후, 매장 곳곳에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7-1 2층
영업시간 월~금요일 17:00~00:00,
토·일요일 17:00~02:00 문의 02-6404-0513



친환경마을 밥풀꽃

포인트 프레드릭

합정동과 망원동 사이의 조용한 이면도로에 위치한 커피 바 '포인트 프레드릭'은 비건, 케어, 반려동물 등 모든 존재에게 자리 내어주는 공간이다. 위스키나 비건 와인 등의 주류뿐 아니라 커피와 녹말코울 음료를 준비하고,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밤 맛 칵테일 '몽블랑' 같은 계절 메뉴를 선보인다. 병아리콩과 파슬리를 튀겨 당근 라페와 함께 먹는 중동 음식 '팔라펠' 등 술을 부르는 비건 옵션 안주도 있다. 이곳에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 머리카락 길이, 피부색, 대화 주제와 관계없이 본연의 모습 그대로 편히 머물 수 있다. 매장 내부에 케어 매거진과 페미니즘 책을 비치하고, 수어 일러스트가 담긴 스티커를 붙여두는 등 다양성을 고려한 섬세한 손길도 눈에 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2길 12 1층
영업시간 화~수·금요일 14:00~22:00,
토·일요일 14:00~22:00,
월·목요일 휴업 문의 @pointfrederick



창문 카페 별꼴

은평구 미래혁신센터에 위치한 '창문 카페 별꼴'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공간을 지향한다. 전동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입구, 네온사인 위의 무지개 깃발, 'We Welcome All'이라고 적힌 포스터까지. 작은 표식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생길 거라는 믿음이 곳곳에 담겨 있다. 비건 옵션 메뉴를 준비했고, 밸로아 코코아에 비건 우유와 크림을 넣은 '비건 크림 초콜릿'이 이곳의 인기 메뉴다.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와 식당에 갔다가 꽂겨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인 단체 다이애나랩과 함께 '차별 없는 가게' 프로젝트를 기획해 모두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중이다. ↗



초록색 게시판 "누구든지 와서 무엇이든
볼일 수 있는 게시판이에요. 다양한 가치가
전시된 게시판을 본 손님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친환경마을 밥풀꽃

'친환경마을 밥풀꽃'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과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유기농 채식 식당이다. 고기 대신 채소로 끓인 채식 육개장인 '채개장'과 토마토, 땅콩버터, 허브를 넣은 서아프리카식 덮밥 '도모다' 등 건강에 이로운 재료로 든든한 한끼를 준비한다. 점심엔 채식, 오후엔 카페로 운영하며 저녁과 주말에는 장소를 대관하는 변화무쌍한 곳. 하루는 여성 인권 노동 영화제를 열고, 다른 날은 치매 노인과 가족들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식이다. 매장 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고 점자 메뉴판도 마련했다.

주소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5길 8 영업시간 월~금요일 11:30~18:00
(점심 11:30~14:30, 카페 15:00~18:00 문의 02-387-1129)



We Welcome All "모두를 환영하는
‘차별 없는 가게’가 되기 위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접근 환경을 갖출 것, 누구도
차별하지 않음을 약속하고 실천할 것."

#영양보습케어
#자음보습단
#영양훈증수



@ggung_y

업그레이드된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은 건조하고 힘을 잃은 피부에 영양과 탄력을 선사하고, 피부 진정을 도와줘요. 부드럽고 영양감 있는 질감으로 피부결을 촉촉하게 개선해주고 보습에도 좋아요.



@so_beauty0501

피부의 탄력 시간을 되돌려줄 기초 라인입니다. 보습 효과가 우수해 촉촉하면서 피부 깊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150ml, 6만8천원. 설화수 자음유액 퍼펙팅, 125ml, 7만2천원. 보습 효능을 담은 자음보습단™과 보습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영양훈증수를 담아 부족한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며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주는 영양 보습 스킨과 로션.

생생한 제품 평가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을 체험해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LEE MI KYUNG

@nsykiki

화장대를 립셔리한 무드로 완성해주는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 환절기라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는데, 두 제품을 사용한 뒤로 확실히 수분과 탄력이 충전되면서 피부가 더 준득해진 것 같아요.



@daheeching

잠들기 전, 피부 속 조명을 밝혀주는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 스위치 ON. 수분과 영양을 꼭꼭 채워 본연의 피부결을 되찾아주는 고기능성 뷰오예요. 저처럼 사계절 내내 건조한 분들께 특히 더 추천.



@sooaini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자음수 퍼펙팅, 자음유액 퍼펙팅은 마음에 쓱 들어요. 요즘 바쁘고 정신없어서 피부 관리를 따로 하기 힘든데, 피부에 영양과 탄력을 채우는 데 이만한 스킨케어가 없어요.

@all.about.claire

물처럼 흘러내리지 않는 젤-인 워터 텍스처로 보습감이 오래가는 자음수 퍼펙팅과 매끄럽게 발리고 빠르게 흡수돼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음유액 퍼펙팅, 두 품비는 정말 최고! 피부가 땅기지 않고 헐렁되는 향기도 너무 좋아요.



@dressdressing

수분을 채워주고 오랜 시간 지속시켜줘 피부 장벽 보호에 탁월한 설화수의 자음수 퍼펙팅과 자음유액 퍼펙팅. 피부 속이 땅기지 않고 쫀득한 느낌에 연령 불문하고 사용하기 좋아요. 부모님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추천해요.



@sungjinsungjin

자음수 퍼펙팅은 세안 직후 바르면 피부 속까지 오랫동안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이어 자음유액 퍼펙팅을 바르면 피부 속이 수분과 영양으로 채워지면서 든든해요. 피부 월등 준비가 다 끝난 느낌!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 올해 마지막까지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지켜주길 부탁해~



설화수 '아름다움은 자란다'

'아름다움은 자란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애 모든 순간에 본연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을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PHOTOGRAPHY: www.gettyimagesbank.com

스물셋이 되면 죽고 싶었다

젊지 '않은' 아름다움에 대하여

writer PARK SUN AH

스물셋이 되면 죽고 싶었다. 벼락을 맞거나, 자다가 그대로 죽어버리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스물세 살의 어느 날에 죽었으면 했다. 젊은 날에 죽기를 바라게 된 것은 고등학생 시절 문학 교과서에서 읽은 <그 여자네 집>이라는 단편소설 때문이었다.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에는 만득이와 곱단이라는 커플이 등장한다. 꽃처럼 예쁜 곱단이와 똑똑한 젊은이인 만득이는 작은 시골 마을의 마스코트였다. 어느 날, 만득이는 일제에 징병되어 떠나고 곱단이는 일본 군위안부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남자와 혼인한다. 휴전되어 만득이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곱단이는 신의주로 떠난 뒤였고 만득이와 곱단이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한동안 슬퍼하던 만득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순애라는 친구와 결혼해 평생을 산다.

줄거리만 들어도 슬픈 이 소설에서 내가 가장 서글프게 여긴 부분은 순애의 장례식이다. 평생 만득이 곱단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며 질투하던 순애는 자신의 스무 살 때 모습을 담은 영정 사진을 준비한다. 만득의 기억 속에 예쁘고 어린 얼굴로 남아 있는 곱단과 평생을 경쟁한 순애의 마지막 질투의 발로였다. 순애의 마음을 생각하니 속이 뒤틀렸다. 아름답지 않았다. 왜 자신의 치졸한 감정을 저런 우둔한 방식으로 드러냈을까. 좀 더 우아하게 질투를 감출 수는 없었을까. 우습지만 이런 연유로 이른 죽음을 바라게 되었다. 노인이 되어 궁상맞게 젊은 자신을 그리워하거나 어린 아름다움을 질투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아는 모든 이의 기억 속에 젊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남기기를 기대한 것이다. 스물셋이 되던 해에는 거의 매일 죽음을 기대했지만 죽지 않았고, 서른넷이 된 지금도 말짱히 살아 있다. 스물셋의 12월 31일에는 조금 울었다. '결국, 죽지 못했네. 왜 올해도 이렇게 재미있었을까. 즐거웠지만 더 늙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은 일은 어째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며 훌쩍거렸다. 죽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을 거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워서 사는 게 재밌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도 모르는 스물셋 젊은이였다.

죽지 못한 나를 두려움에서 구원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죽고 싶게 만든 소설가였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박완서 산문집을 발견했다. 책장 사이에 서서 대총 훑어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다 읽어버렸다. 다리가 아플 때는 쭈그리고 앉았다가 종아리가 저리면 다시 일어나 기를 반복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산전수전을 겪고도 세상을 사랑하는 태도를 잊지 않는 어른,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가 들려주는 다른 이야기도 얼른 읽고 싶어 작품 목록을 찾아보다가 <그 여자네 집>을 쓴 작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가벼운 절망, 농락당한 기분이었다. 순애는 그토록 못난 질투를 안고 생을 마감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단정하고 귀엽게 살 수가 있나! 그 어른이 만든 소설을 보며 늙음을 두려워했다가, 그가 쓴 수필을 읽으며 나이 드

는 일은 아름다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늙어가는 일의 두려워지면 귀여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 알게 된 할머니 중 특히 좋아하는 이들은 영화감독 아네스 바르다, 동화작가 사노 요코, 수필가 김향안 같은 이들이다. 할머니가 등장하는 드라마도 좋아한다. <그레이스 앤 프랭키>는 40년 동안 함께 산 남편들이 캄밍아웃하는 바람에 70대에 이혼 당한 두 할머니가 살아가는 이야기다. <디어 마이 프렌즈>는 다섯 할머니의 우정을 다룬다.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최불암 할아버지가 전국 곳곳의 토속 음식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한국인의 밥상>이다.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여유가 있다. 두려움을 안고 그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느긋하게 나의 조바심을 돌봐주는 어른들의 태도에 반한다.

좋아하는 할머니들은 대부분 천진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웃을 때면 눈 가와 콧등에 주름이 예쁘게 진다. 분명 다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웃는 걸까. 그들이 자신의 주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웃음을 보며 느낄 수 있다. 주름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어른의 얘기는 조금씩 파여가는 내 주름을, 그걸 뚫어져라 바라보게 되는 웅졸한 마음을 단단하게 여며준다. 생은 계속되고 그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멋진 순간이 이어진다는 걸 가보지 않은 이도 믿어보게 해주는 거다. 변해가는 것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며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귀여운 할머니로 늙을 수 있다는 믿음, 어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믿음에 여려 색이 입혀진다.

올해는 산부인과에 갔다가 처음으로 "어린 나이가 아니어서"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제 내 자궁이 더는 젊지 않아서 다른 도구를 사용해 피임하거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줘야만 곱게 늙을 수 있다는 유의 얘기였다. 한동안 '어린 나이가 아니어서'라는 말을 주문처럼 곱씹었다. 아, 이제 어리지 않구나. 꼭 그 말을 듣지 않아도 거울을 보거나 지금 자판을 치는 손가락을 펼쳐 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자신의 나이 들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받아들이는 건 그렇지가 않다. 순애가 자신의 장례에서 민망할 정도의 젊은 사진을 건 마음이, 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된다. 지금의 나와 사랑스러운 할머니가 되는 일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 삶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젊음과 늙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잘 늙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믿음 삼아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은 무섭다. 욕심이 득실득실한 채 살아온 내가 많은 걸 잊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순순히 배워갈 수 있으려나. 자신의 기미나 주름을, 중력을 따라 처지는 코끝이나 젖꼭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겪어봐야 할 일이 있다. 용기 있게, 두려울 때는 아름다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지표 삼아 한번 잘 가봐야지.

박선아(아트 디렉터)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했다. <나일론> 매거진 피처 어시스턴트를 시작으로 <어라운드> 매거진과 안그라픽스에서 에디터로 일했으며, 두 권의 책 <20길로그램의 삶>과 <어떤 이름에게>를 출간했다. 현재는 젤로몬스터와 누데이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명함에 적히는 직업이 바뀌고 다른 매체와 소재가 달리져도 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여긴다. 언젠가는 작은 집에서 넓은 사람과, 깊은 마음으로 살기를 꿈꾼다.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깐깐하게 고른 11월의 강추템.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CHOI HYANG JIN



3

4

5

1. 아이오페 레티놀
포 릴글 0.3% 고함량
레티놀 성분으로 식약처
주름 개선 기능성을 인정
받은 혁신적인 제품.
20ml, 13만원.

2. 바이탈뷰티
자음미단 홍삼을
비롯한 10가지 전통
식물 추출물로 지치기
쉬운 중년 여성에게
생기와 활력을 채워주는
프리미엄 홍삼환.
135g(3.75gX36환),
12만원.

3.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 자음유액
퍼펙팅 자음보습단™과
영양 훈증수를 담아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스킨과
로션. 각각 150ml,
6만7천원/125ml,
7만2천원.

4. 바이탈뷰티
프림로즈 월경 전 불편
상태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60g(30일분), 5만원.

5.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 #56 플레어 레드,
#39 로즈 베일 보습과
컬러를 한 번에 잡은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의 새로운 두 컬러.
각각 3g, 4만원.



명작수천

바이탈뷰티
Revitalizing Ginsengberry
and Deer Velvet Ampoule

25g

